

인문계

모의논술

수험번호 ( ) 성명 ( )

[문제] 지문 (가), (나)를 참고하여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 (다)의 [A], [B] 내용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1,200자, 100점)

(가)

농민들에게 소 한 마리 가져보는 것은 평생 가장 간절한 꿈이었다. 농민들의 오랜 꿈은 소 사육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충족될 수 있었다. 15세기 초 3만여 마리로 추산되던 소는 20세기 초 110여만 마리로 늘어났다. 농사꾼에게 소는 가족이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일원이 된 소는 커다란 축복과 함께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중 소에서 유래된 홍역과 천연두는 조선 시대에 널리 성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시달리도록 했고 병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에 허덕이도록 만들었다.

그중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천연두는 천연두, 마마, 포창, 손님, 호역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조선의 기록에 의하면 성인은 치사율이 20퍼센트 정도였지만 어린 나이에 걸리면 50~60퍼센트에 이르렀다고 한다. 천연두에 걸리면 시력을 상실하는 등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곰보가 되는 추한 얼굴을 피할 수 없었다. 누구나 겪는 치명적인 질병이었기에 천연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곤 하였다. 천연두의 유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의 문상과 조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대군을 베이징으로 보내라는 청나라의 요구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15~16세기까지 가축 사육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천연두의 발생은 국지적이었다. 그러나 인구와 소의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 17세기 이후에는 천연두의 발병이 크게 늘어났다. 기록에 따르면 18세기에는 천연두 관련 발병 기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피해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7~18세기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현종 10년(1669)에 함경도에서만 900명이었고, 숙종 19년(1693)에는 제주도에서만 1,950명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18세기에 편찬된 『성호사설』이나 연행록인 『연행기사』에 따르면 “만주인은 남녀를 막론하고 곰보가 심히 드물다. 우리나라처럼 두창이 성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기록하여 청의 만주인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주인은 어떻게 하여 천연두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된 것일까? 만리장성 이북의 만주 지역에서 천연두 유행에 관한 기록은 16세기 중엽에야 등장하기 시작하므로 만주인들에게 천연두는 낯선 질병이었으며 그들은 유전적으로 취약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주인들은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르며 매우 두려워하였다.

천연두의 위협과 그에 대한 만주인의 공포는 평상시에 국한되지 않고 불결한 위생 상황이나 열악한 의료 체계로 인해 전근대 시기 전쟁터가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다는 상식을 고려하면 전시에 더욱 심했다. 만리장성 이남의 명나라 땅에서 전쟁을 할 때에는 천연두 유행 가능성이 높은 겨울에서 이른 봄을 피해 침공하거나, 침공하더라도 면역을 얻은 왕공과 장수 위주로 군사작전을 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도 조선이 마마가 도는 지역이므로 면역을 얻지 못한 왕공과 장수를 귀환시키고 점령지를 지킬 증원 병력은 면역을 얻은 인물들을 파견하고자 하였다. 병자호란(1637) 당시에도 전쟁이 종결되자 이틀 만에 곧바로 2,300명의 병력만을 데리고 서울 도성에 입성하지도 않고 황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렇다면 왜 조선인들은 18세기 들어 만주인이 천연두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천연두에 걸리는 사람이 적다고 인식하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천연두를 극복하기 위한 강희제의 인체 실험에 힘입은 바 크다. 어려서 천연두를 앓고 살아남은 강희제는 마마자국이 남아 있어 천연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어느 해 겨울 그가 가장 사랑하는 12번째 아들에게 천연두가 발병하여 급히 치료법을 찾게 되었다. 궁정의 태의는 강희제에게 천연두의 고통을 소량 취하여 건강한 사람에게 주입하여 항체를 만든 뒤, 이를 다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인두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천연두 항체를 가진 사람을 취하는 것과 적당한 주입량을 찾는 것이었다.

강희제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궁녀 중에서 인체 실험대상 30인을 선발하였다. 소량의 천연두 고름을 주입받은 이들 중 4명이 죽고 26명이 살아남았다. 다음으로 26명을 천연두 환자들 사이에 살게 놓아두니 다시 4명이 죽고 22명이 살아남았다. 이로써 천연두에 대한 항체를 보유한 22명의 '인두'가 확보된 것이다. 이들에게 얻은 항체를 다시 희석시켜 아들의 체내에 주입하였는데, 아들의 병세가 확연히 호전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의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희제가 사용한 방법은 시묘(時苗)법인데 비록 성공은 했지만 성인에게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방법으로 아들의 병세가 호전된 것은 다소 행운이 따랐다고 한다. 이후 시묘법은 계속 접종자를 늘려 마지막에는 접종 7대 후에 독성이 사라진 항체를 얻어 이를 접종하는 숙묘(熟苗)법으로 발전하였고 이 방법이 청나라 백성들에게 보급되었다. 이로써 천연두는 적어도 청나라 내에서는 불치병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18세기 청나라를 방문한 조선인들은 만주인 중 곰보가 드물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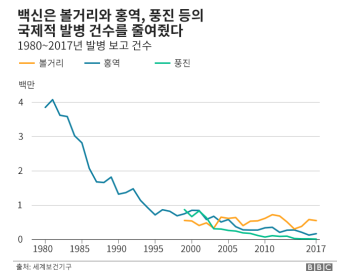
고혈압은 현대인이 겪는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다. 하지만 고혈압이 질병으로 정확히 정의되고 그 기준이 제시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다. 사실 1960년대까지도 고혈압이 질병인지 아니면 신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을 정도였다. 1932년 미국 대선 기간 중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선 선거 본부는 대통령의 혈압이 수축기 140mmHg, 이완기 100 mmHg로 정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후 대통령의 혈압이 188./105까지 상승했는데도 주치의는 혈압 증가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3년 4월 12일 뇌출혈로 사망했고 혈압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공론화되면서, 1948년 트루만 대통령은 National Heart Act를 공표하면서 고혈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과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100에 자신의 나이를 더한 숫자가 자신에게 정상인 혈압이라고 생각했고,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열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1977년 미국의 고혈압 가이드라인 합동제정위원회(JNC)에서 수축기혈압에 대한 언급 없이 이완기혈압이 105가 넘는 사람은 모두 고혈압으로 판정하였다. 이것이 고혈압의 의료적 기준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그 후 2003년까지 JNC는 7차에 걸쳐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가이드라인은 관련 과학연구가 축적되고 고혈압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변화되었다.

고혈압 정의에 근본적인 변화는 2003년 7차 정의에서 종전까지는 정상범위에 속했던 120~139/80~89를 고혈압 전단계로 규정한 사건이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향후 2~4년 사이에 20% 이상 고혈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전단계 혈압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 인구의 25~50%에 달하기에 이들을 고혈압 전단계로 지정하는 것이 질병 예방 효과보다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심장학회와 미국고혈압학회는 2017년 고혈압의 기준 자체를 종래 140/90 mmHg 이상에서 130/90 mmHg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 기준 변화에 대해 여러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논쟁적이었고 질병으로서의 고혈압에 대한 고려보다는 보건의로 측면에서 고혈압 환자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예방적 조치 및 고혈압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다)**

**[A]** 파스퇴르는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세균 때문임을 밝혀 이후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고, 코흐는 특정한 세균이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동물의 몸을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여 질병 퇴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인류는 많은 질병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1979년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사라졌다고 선언하였다.



**[B]**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2022년부터 사용될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이용 장애'는 게임에 몰두하는 행동이 음식 섭취 등 생존을 위한 활동이나 직장에 출근하는 것 같은 사회적 활동보다 우선시 되는 양상이 적어도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 해당된다..

